
- 제2기 일자리위원회 -

일자리 복지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

제2기 「일자리 복지분과위원회」 제1차 회의 결과보고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21. 4. 22.(목) 15:00~16:45 / JST 중회의실(1101호)
 - (참 석 자) 분과위원(11), 일자리경제과장, 스마트도시담당관, 장애인복지과장, 노인정책과 행복한인생팀장
 - (주요내용)
 - 인천시 장애인 및 어르신 일자리 정책 보고(장애인복지과, 노인정책과)
 - 2기 복지분과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간사 선출
 - 2기 복지분과 운영방향 및 제안의제*(스마트도시담당관) 자유 토의
- * (의제명) 「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인천형 디지털트윈 행정」

□ 주요 논의내용

① 인천시 장애인 및 어르신 일자리정책 주요 건의사항

< 장애인복지과 >

-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과징금을 무는 민간기업이 다수, 차라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필요(안○○ 위원)
 - ☞ 삼성과 무궁화전자*처럼 인천지역에도 기업의 시설투자 필요. 셀트리온에 투자 검토를 요청한 상황(장애인복지과장)
- * 1994년 장애인 고용을 위해 삼성그룹에서 출연·설립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

< 노인정책과 >

- 지난 1기에서 베이비부머를 지원할 전담부서 필요성을 건의, 부서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하여 직제 신설을 고려 바람(김○○ 위원)

② 제안의제에 대한 주요 의견 및 질의사항

《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인천형 디지털트윈 행정》

(제안자: 스마트도시담당관)

- (사업기간) 2022. 3. ~ 12. * 협치형 주민참여예산
- (사업대상) 경력단절여성, 결혼이민자, 장애인, 어르신 등 고용취약계층 100여명
- (사업내용) 시민들이 직접 도시 기초정보를 수집·갱신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고용취약계층을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로 양성하여 데이터자산화체계 구축

< 장○○ 위원 >

○ 인천시에 좋은 지적재산이 될 거라 기대되며, 데이터 작업에 대한 기본급은 전혀 없는지?

☞ 대부분의 공공일자리와는 달리 기본급 없이 작업한 만큼 대가를 제공하는 방향. 다만 작업량에 상·하한 쿼터를 정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(스마트도시담당관)

< 김○○ 부위원장 >

○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 이 사업이 어떻게 복지와 연결되는지, 이 의제를 복지분과에서 왜 다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움, 명확한 설명 필요

☞ 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일자리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또한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(스마트도시담당관)

② 시민들이 직접 도시정보 데이터 갱신에 참여하는 필요성에 대해 복지분과 차원 공감대 형성 필요. 또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다질 것인지 논의를 당부 드림(스마트도시담당관)

< 이○○ 위원 >

○ 작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경력단절여성, 결혼이민자, 장애인, 어르신 등 고용취약계층 중 어느 그룹을 주요 타겟으로 정할지 논의 가능. 또한 대상자 모집 시 학력 등 기본요건이 필요

☞ 행안부 공모사업의 경우 청년이라는 나이 기준 외에 별다른 자격조건이 없었음. 이 사업 또한 계층별 배분 없이, 학력이나 자격증 제한 없이 지원접수를 받고자 함

< 손○○ 위원 >

○ 경단녀, 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. 4차 산업에 맞는 신직업군으로 기대

- 디지털트윈의 본래 취지는 수집·갱신한 디지털 정보를 통해 시뮬레이션하여 지역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는 것임. 그런데 단순히 도형정보를 그리는 기초작업이라면 예산 낭비 우려
- 어떤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작업하는지를 먼저 정립한 이후 대상그룹을 논의해야 함
 - ☞ 디지털트윈 정보로서 활용이 되려면 도형화, 입체화가 필요. 단순히 도형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의 층수, 연혁, 수용가능인원 등 각종 기초정보를 입력해야 함. 이를 용역이 아닌 시민이 직접 데이터를 갱신하고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음

< 김○○ 위원 >

- 현장에서 4차 산업에 맞는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으나 새일센터로서는 수행능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. 그 동안 고민하고 있던 인프라 부족과 취업처 확보가 다소 해소될 거라 기대
- 어느 정도 교육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이 위탁·선정될 필요
- 또한 현장에서 보면 경력단절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님. 굳이 경력단절여성과 다른 장애인, 어르신층과 구분하여 대상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
 - ☞ 운영기관은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해왔던 교육업체가 할 계획이며 새일센터,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지원기관과 조율해 나갈 것임(스마트도시담당관)

□ 향후 계획

- 제2기 일자리 복지분과 제2차 회의 개최 : '21. 5. 20.(목)
 - '디지털트윈 행정' 의제 구체화, 인천시 여성 및 다문화 정책 공유